07

제 2 토 론

사회적경제, 협동조합은 역사적 경험과 시민사회의 역량에 비례한다.

유정규(지역재단 운영이사)

사회적 경제, 협동조합은 역사적 경험과 시민사회의 역량에 비례한다.

유정규(지역재단 운영이사)

❍ 사회적 경제, 협동조합에 대한 유럽 선진사례지역(볼로냐, 트렌토 등) 견학을 다녀왔지만 얼마나 이해했는지,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임

- 현상을 보고, 설명을 들으면서 무언가 이해했다고 하지만 그 대부분은 현재의 존재형태('현상')을 파악하는 인인데,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"오늘날의 선진사례"가 존재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아닐까 ?

❍ 협동조합의 도시 볼로냐나 트렌토는 「협동의 필요성」이 일상적인 생산 및 소비생활에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음

- 가령,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죽제품생산기업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가죽을 생산하는 기업과 협력해야 하고, 질 좋은 가죽을 생산하는 기업은 원피(原皮)를 공급하는 목축업자와 협동하지 않으면 안 됨. 때문에 이곳에서는 하나의 대기업보다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고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존립할 수 있었고, 이것이 오늘날 협동조합의 도시 볼로냐로 발전할 수 있었던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됨
- 이처럼 각 경제주체들간의 협력을 필요하게 만든 원인,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, 우리는 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추지 못했던 것일까, 역사적 배경이 다른 우리가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등을 밝혀내고, 실천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함

❍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, 퀘백은 어떻게 캐나다의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협동조합의 도시가 되었을까, 될 수 있었을까, 현재의 협동조합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함

- 또한 행정(주정부 혹은 연방정부)과의 대등한 협상을 가능케 했던 시민사회진영의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으며, 그러한 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?
- 캐나다 퀘백의 협동조합을 소개할 때는 대부분이 개별협동조합 보다는 '네트워크' 혹은 지원조직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(오늘의 발제도 유사함), 그

원인은 무엇일까?

- 흔히들 퀘백협동조합의 특징 중의 하나로 「지역개발협동조합」을 얘기하는데, '조합원의 자발적인 조직체로서 스스로 사업에 참여(=출자와 이용)하고, 그로부터 사회적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체'인 협동조합의 정의/특성에 비추어서, 지역개발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누구이며, 어떻게 조합사업에 참여하며 이익을 분배/배당받게 되는가 의문임
- '지역내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, 법률상 협동조합의 형태를 취하며 지역협동조합의 네트워크로 기능하며, 협동조합 설립지원, 협동조합간 협동도모, 지역에서 협동조합의 이해 대변 등의 목적 수행'한다고 했는데, 이러한 조직을 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지 ? ⇒ 지역재단도, 충남발전연구원도 협동조합 ? 협동조합기본법에 으거하여 설립된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은 이와 어떻게 다르고, 무엇인 같을까 ?

❍ 다기능 농업은 '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농업'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, 농촌관광, 도농교류, 6차산업화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을까 ?

- 현 정부의 농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'6차산업화'는 결국 다기능 농업의 활성화 혹은 다기능 농업의 일부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지 ?
- 다기능 농업의 발전 정도는 농업/농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즉, 시민들이 농업/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소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텐데,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특별히 네덜란드가 앞서서 다기능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?

❍ 우리나라 다기능 농업 현황과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는 ?

- 연구자로서의 과제, 정책담당자로서의 과제, 현장실천가로서 과제 등등 ?